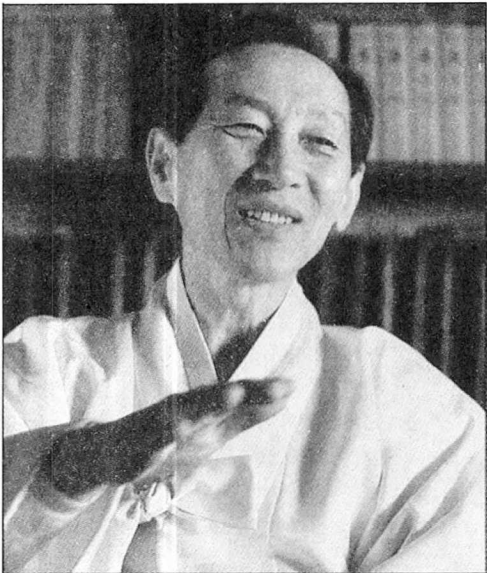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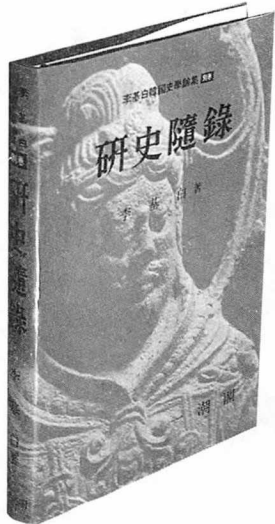


“학문은 진리를 찾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고희 맞은 원로사학자 이기백 교수



이기백교수



우리 사학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그 유명한 「한국사신문」의 저자인 이기백(한림대 사학과) 교수가 최근 고회를 맞아 그간 여러 잡지에 써왔던 글들을 모아 수상집을 펴내는 한편, 후학·제자들로부터 두툼한 기념논총을 증정받았다. 이 교수는 그동안 “원하는 날까지 제시라”는 한림대측의 배려로 통상적인 정년을 훨씬 넘긴 일흔까지 강단에 서 왔는데, 마침 내년 2월 “건강상의 이유로” 정년퇴직까지 예정하고 있는 차여서 그의 이번 책 출간과 후학들의 논총 증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두번째 수상집 「연사수록」

학자의 저술이 그가 몰두해온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라면, 학자의, 특히 저술로 이름높은 학자의 학문 외의 시평·수상 같은 글모음은 ‘큰 바위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뒤안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가치를 지닌다. 동학(同學)이라면 그의 연구저술이 더 흥미있게 다가올 테지만, 보통 독자에게는 저술보다 그외의 글이 때로 더 큰 감동과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교수가 고회를 맞아 묶은 「연사수록」(일조각)은 한국사학계를 대표하는 한 노학자의 학문적 일생을 편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그가 ‘인생’과 ‘학문’과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때그때 지면의 요구에 따라 발표했던 글모음으로, 73년 퍼냈던 같은 성격의 「독사수록」에다 최근까지의 글을 덧붙여서 펴낸 것이

다. “나면서부터 한국사를 공부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그는, 사학자의 꿈을 그토록 어려서부터 운명적으로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음을 이 책에서 회고하고 있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경 공부시키기 위해 손수 농원을 일궈낸 분으로 그룬트비히의 “그 나라의 말과 역사가 아니고서 그 민족을 깨우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상기시키며 두 형제(그와 동생 이기문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사학과와 국어학자로 키워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분이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작은 분신이라고 명명하는 「한국사신문」에 얹힌 이야기를 쓴 ‘나의 책 「한국사신문」을 말한다’를 비롯해, ‘학문적 고투의 연속’(예정된 한국사 연구의 일생, 소박한 학문적인 꿈, 동경 유학, 해방전후, 서울대학 사학과 학생 시절, 사상사의 연구, 개설과 사론, 연구분야의 확대, 조약돌 같은 나의 인생과 학문) 등 한 학자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는 자전적 에세이도 실고 있다.

“역사의 뒤안 그늘진 면은, 실은 표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남겨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논문으로 쓰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짧은 글로나마 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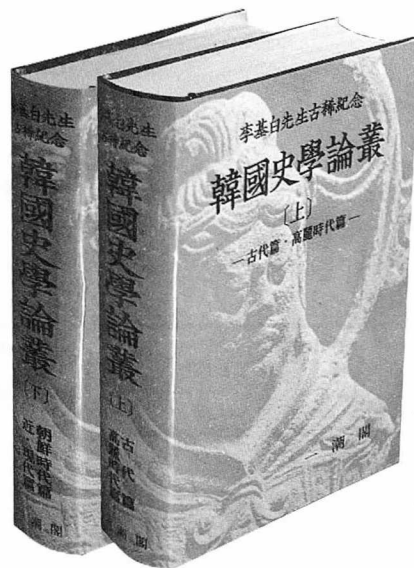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아닌가. 나

는 이 작업을 하는 한 사람의 심부름꾼이길 원해 왔다. 그것이 민족과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도리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저자의 말처럼 여기 실린 글들은 평범한 사람의 감동적인 생애에 대한 저자의 존경과 그리움을, 그리고 한국사를 공부해오며 여러 지면에서 발언해왔던 글들이 들어 있다. 5장 ‘이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어느 노파, 이름없는 한 사람의 힘, 옥진이의 시, 이원전씨의 회상, 함석헌 선생의 외로움 등) 편이 앞엿말에 대한 답변이라면, 3장 ‘한국사를 보는 눈’(역사를 보는 눈, 한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릇된 식민사관의 문제, 민족의 발전과 외세, 우리 근대사를 보는 시각 등) 편은 뒤의 역사학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던 글이다.

70여편의 논문모음 「한국사학논총」

후학·제자들로부터 증정받은 ‘기념논총’은 홍승기(서강대) 민현구(고려대) 교수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간행위원회가 3년여의 준비를 거쳐 이 교수의 고회날에 맞춰 발간했다. 이 논문은 상(고대·고려시대) 하(조



선시대·근현대) 두 책으로 한 질이 되게 꾸며졌는데, 상·하 합쳐 거의 19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크기로 모두 70여편의 논문이 시대별·시기순으로 실려 있다. 여러 사람의 논문모음임에도 다룬 시대나 분야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점이 큰 미덕이다.

논문의 필자는 강경숙(충북대 고고미술사

“내가 사학자의 꿈을 그토록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

학과) 강우방(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명대(동국대 미술사학과) 이병걸(경북대 역사교육과) 이정식(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과) 이종욱(서강대 사학과) 정구복(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등 모두가 이 교수의 후학이거나 제자들로 30, 40, 50대의 비교적 젊은 학자들이다.

수록논문은 고대편 「삼한의 대외교역체계」(이현혜)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단계」(이기동) 외 19편, 고려시대편 「고려 당악의 음악사적 조명」(송방송) 「고려시대의 가계 기록과 족보」(김용선) 외 17편, 조선시대편 「조선초기 수리정책과 수리시설」(이태진) 「조선 후기 당쟁의 원인에 대한 소고」(이성무) 외 13편, 근·현대편 「1880년대 열강의 이권외교에 나타난 제특성」(이배용) 「한국 역사학의 종합지향 전통」(김재경) 외 13편이다.

이 논문들 가운데 지난 89년에 발견된 ‘영일 냉수리비’를 분석하여 마립간시대에서 중고시대에 걸친 기간의 신라사에 관한 여러 문제를 검토한 이종욱 교수의 「영일 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통치제도」, 고려말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책을 다룬 민현구 교수의 「고려 공신왕대의 ‘주기청 공신’에 대한 검토」, 갑오농민봉기가 유교적 의에서 봉기한 ‘의비’라고 주장한 유영익 교수의 「전봉준 의거론」 등은 종래의 통설에 반하는 새로운 주장들로 특히 주목을 끄는 논문들이 다.

또한 최근 일고 있는 원근 옹호론에 대한 반론으로 씌어진 정두희 교수의 「이순신 연구」, 해방직후 미국의 한국화 정책의 실체에 초점을 맞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과 이정식 교수의 「해방직후 미국의 대한정책」 등도 기존 학계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논문들로 눈길을 끈다. 일조각측은 이 ‘기념논총’ 수록 논문들을 현재의 한정판에서 시대별로 단행본화하여 저점에 내용을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본격 논쟁도 예상된다.

이기백 교수의 서울대 사학과 동창인 한우근 교수(서울대 명예)는 이 ‘기념논총’의 하서(賀序)에서 “이 교수의 연구는 건실한 실증적 방법에 기초를 두면서도, 한국사도 국민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학의 지표를 제시했다”고 이 교수의 학문인생을 평했다.

— 정혜욱 기자